‘창단 11년만에 첫 준PO’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격전지 출격

오세일 감독 “매경기 최선 다해 좋은 성과 낼 것” 각오

한승미 주장 “모든 역량 발휘해 더 높은 곳 까지 진출”

오늘 청주서 SK 슈가글라이더스와 준PO 단판 승부

창단 11년만에 처음으로 핸드볼리그 준플레이 오프에 진출한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17일 오전 광주 서구 숙소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은 19일 오후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3위 SK 슈가글라이더스와 단판 승부를 펼친다.

창단 11년만에 핸드볼리그 첫 준플레이오프에 나서는 광주도시공사 여자 핸드볼팀이 격전지로 향했다.

오세일 감독과 주장 한승미는 출격에 앞서 광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선수단 숙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판 승부인 만큼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성과를 내겠다”고 18일 밝혔다.

2020~2021SK핸드볼코리아리그를 4위로 마친 광주도시공사는 19일 오후 2시30분 충북 청주 SK호크스 아레나 3위 SK 슈가글라이더스와 준플레이 오프 단판 승부를 펼친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삼척시민체육관으로 옮겨 21일 같은 시간에 2위 삼척시청과 상대하고 24일 1위 부산시설공단과 만난다.

오 감독은 플레이오프는 단판 승부인 만큼 첫 경기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다.

오 감독은 “시즌에 돌입하기 전 코로나19 때문에 운동장에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해 리그에서 최대한 많은 승을 거두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창단한 광주도시공사는 하위권을 맴돌다 지난시즌 4승3무7패로 창단 이후 처음으로 6위를 기록했다. 올시즌에는 10승4무7패·승점 24점으로 4위에 이름을 올렸고 창단 11년만에 처음으로 준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순위, 승점, 승수 역대 최고 성적이며 주포 강경민은 리그 한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과 함께 2년 연속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상을 수상했다.

리그에서 206골을 기록한 강경민은 지난 2013년 장소희(당시 SK)가 세운 한 시즌 최다 185골을 경신했다.

한때 성적이 나오지 않아 ‘팀 해체’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광주도시공사는 오세일 감독 부임과 함께 성적을 올렸다.

오 감독은 “리그 최대 승수가 목표였지만 선수들이 잘해줘 준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게 됐다”며 “선수들이 압박감을 느낄 것 같아 편안하게 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2년전 감독 부임 전까지 팀이 패배가 더 많아 선수들이 ‘안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었고 타 팀에서 광주도시공사를 보며 불안해 했었다”며 “부임 이후 선수단 결속력과 조직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는데 좀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또 “이제는 선수들이 경기에 나서면 ‘이겨야 한다’는 마음을 먼저 갖고 있어 이번 준플레이오프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단판 승부인 만큼 매경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시즌 SK와 만나 이겼던 경험이 있고 선수들이 젊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 두 골 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 종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승미 주장은 “현재 선수단 분위기가 매우 좋다”며 “준플레이오프는 단판 승부여서 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올 예정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민정기자

벤투호, 월드컵 3월 예선 또 연기

6월 중립국서 모두 모여 개최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뤄져다 올해 3월 열릴 예정이던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이 결국 또 연기돼 6월 한 곳에서 모여 치러지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전날 한국을 포함한 2차 예선 H조 국가 협회 대표자들과 화상 회의를 열고 3월 열려던 카타르 월드컵 예선을 6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AFC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각국 협회 대표자들과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예선 4개국 5개팀 8개조 나눠

2019년 11월 이후 지역 예선 멈춰

월드컵 최종예선 9월부터 시작해

협회 관계자는 “한국을 포함해 다수의 국가가 3월 개최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6월로 월드컵 예선이 미뤄졌다”라고 설명했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은 총 4개국이 5개 팀씩 8개조로 나뉘어 치른다. 지난 2019년 9월 처음 2차 예선이 시작됐고 국가별로 4~5경기를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2019년 11월 이후 예선이 멈춘 상태다.

지난해 3월로 연기한 뒤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10월과 11월로 각각 연기됐지만, 결국 취소됐다. 결국 해를 넘겨 3월 월드컵 예선 일정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또 미뤄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별로 입국 시 최대 2주의 격리를 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 최근 FIFA도 선수 안전을 이유로 소속구단의 선수 차출을 거부할 수 있는 임시 규정을 4월 말까지 연장했다. 3월 예선이 진행돼도 해외파는 합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H조에서 레바논,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와 한 조다. 한국(2승2무·승점 8·골득실 +10)은 한 경기를 덜 치른 가운데 투르크메니스탄(3승2패·승점 9·골득실 +3)에 이어 조 2위다.

한국은 3월25일 홈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을 상대한 뒤 30일 스리랑카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3월 예선마저 무산되면서 6월에 남은 일정을 모두 소화해야 한다. 월드컵 최종예선이 9월부터 시작해 6월에는 2차 예선을 마쳐야 한다.

다만 6월에 팀당 최대 4경기씩을 치러야 하므로 기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이 아닌 조별로 한 나라에 모여 치르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지난해 AFC 챔피언스리그가 카타르 도하에 모여 이 같은 방식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협회는 “우리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3월5일까지 AFC가 각국 협회로부터 신청을 받아 같은 달 15일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월 월드컵 예선 연기로 비게 된 A매치 기간에 대해선 “친선 경기도 격리 문제로 추진이 쉽지 않다”면서 향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조직력 붕괴’ 흥국생명, 오늘 인삼공사전서 부활하나

‘쌍둥이’ 학폭 논란에 최근 4연패 부진…2경기 연속 0-3 완패

이재영·아다영 여파로 최대 위기를 맞은 흥국생명이 4연패 탈출에 나선다.

흥국생명은 19일 오후 7시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KGC인삼공사와 홈경기를 치른다.

흥국생명은 시즌 최다인 4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 이재영과 이다영이 전력에서 이탈(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한 2경기에서는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지난 11일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3으로 패했던 흥국생명은 16일 IBK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김연경을 필두로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흥국생명은 이번 시즌 한 경기 최다 점수차 패배 기록(34점차)을 세웠다. 이날 흥국생명은 41점을 올렸고, 75점을 내줬다.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져 손쓸 시간도 없이 무너졌다. ‘최강’이라고 평가받던 전력이 불과 며칠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수비가 흔들린 것이 가장 큰 패인이었다.

서브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조직력이 무너졌다. 세터 김다솔과 박혜진이 고군분투했지만, 경기 전체를 이끄는 역량은 다소 부족했다.

부정확한 볼배급으로 인해 공격력도 저하됐다. 김연경 혼자서는 공격을 감당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 그래도 믿을 선수는 김연경밖에 없다.

대체 외국인 선수 브루나의 부진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재영의 빈자리를 대신한 김미연의 발도 무거워 보였다.

선수단 전체를 마치 무거운 돌이 압박하는 모양새다.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은 경기 중 서브리시브가 되지 않는 것에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감독은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도 경기력이 좀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수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흥국생명은 시즌 17승7패(승점 50)를 기록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2위 GS칼텍스(16승 9패·승점 48)에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만약 인삼공사전에서도 졸전 끝에 패한다면, 마지막 6라운드에서 1위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

이에 맞서는 인삼공사는 이번 시즌 흥국생명을 상대로 첫 승리를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인삼공사는 이번 시즌 흥국생명과의 4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했다.

인삼공사에는 확실한 공격 옵션이 있다. 디우프는 리그 최고 공격수 중 한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비가 약해진 흥국생명을 더욱 거세게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흥국생명전에서 다소 강했던 레프트 최은지의 활약도 기대된다. 최은지는 이번 시즌 흥국생명전에서만 유일하게 40%가 넘는 공격성공률을 선보였다. 센터 한송이 역시 이번 시즌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만큼 공수에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양현종, 비자발급 문제로 캠프 합류 늦어져

텍사스, 18일부터 투수 스프링캠프 시작…광주에 남아 훈련 중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을 맺고 빅리그에 도전하는 양현종(33)의 미국 출국이 늦어지고 있다. 비자 발급 지연 때문이다.

미국 텍사스 지역 매체 포트워스 스타 텔레그램은 18일(한국시간) “양현종과 호세 레클레르, 페르니 오수나, 조엘리 로드리게스 등 4명이 비자 문제로 스프링캠프 합류가 연기됐다”고 전했다.

이날 텍사스의 투수와 포수들은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에 모여 스프링캠프를 시작했다. 그러나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양현종은 여전히 한국에 남아있다.

양현종은 지난 13일 텍사스와 마이너리그 스플릿 계약을 맺었다. 스플릿 계약은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소속에 따라 조건을 달리하는 계약이다. 양현종은 빅리그 입성 시 최대 185만 달러를 받는다.

양현종의 메이저리그 진입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스프링캠프다. 메이저리그 스프링트레이닝에 초청된 양현종은 여기서 기량을 발휘하고 눈도장을 찍어야 빅리그 진출에 한발 다가설 수 있다.

문제는 계약이 늦어지면서 출국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전세계를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자 발급도 지연되고 있다. 늦어지는 캠프 합류가 더욱 달갑지 않은 이유다.

한편, 양현종은 친정팀 KIA 타이거즈의 배려 속에서 출국 전까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한다. 비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국 날짜를 잡을 예정이다.